

3, 4, 5세 유아의 과제 변수에 따른 대인 추론: 특질단서 사용을 중심으로

박 유 정*

이 순 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외양과 특질단서가 갈등적으로 제시되는 대인 추론 과제에서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이 연령 및 과제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고,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추론 단서로 더 사용하는 경향이 몇 세부터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실험에서는 3, 4, 5세 유아 96명을 대상으로 하나의 표적인물과 두 종류의 선택인물을 제시하고, 표적인물이 어느 선택인물과 같은 심리적 속성을 가지는지 판단하게 하였다. 선택인물은 표적인물과 외양이 유사한 인물과, 표적인물과 특질지칭어가 같은 인물이었다. 결과는 유아가 현저한 외양 유사성을 뛰어넘어 특질단서를 대인 추론 단서로 사용하는 경향은 4세경에 나타나며, 유아는 외양 유사성이 높은 과제보다 외양 유사성이 낮은 과제에서 특질단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특질단서와 이미 잘 아는 친숙한 특질단서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유아가 가지고 있는 특질서술어에 대한 일반적 기대와, 유아가 외양과 특질지칭어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공통성에 근거해 추론한다는 유사성 기반 접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대인 추론, 특질단서, 외양유사성, 특질단서의 친숙성, 유사성 기반 접근

유아는 사회적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타인의 심리적 속성과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근거로 추론을 하게 된다. 유아가 접하는 추론의 잠재적 정보원천은 수없이 많으므로, 타

인에 대해 옳은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원천을 추론의 단서로 사용해야 한다. Piaget(1952)에 의하면 유아는 중심화(centration)된 사고 구조로 인해 사람의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론할 수 있다. 그

*교신저자: 박유정, E-mail: paper_clouds@hanmail.net

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론 상황에서 관찰 가능한 외양과 현상을 넘어서 특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단서로 고려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Heyman & Gelman, 2000a, 2000b).

특질(trait)이란 한 사람이 여러 상이한 종류의 자극에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성향(Allport, 1937)을 말한다. 특질은 시간에 따른 안정성,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성, 그리고 행동을 초래하는 인과적 구성체로서의 특성을 지니는데, 아동은 성장하면서 이러한 특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질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특질개념은 관찰 가능한 현상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에 기초한(theory-based)’ 것이다(Heyman & Gelman, 1999). 즉 아동이 특질개념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아동이 특질을 행동이나 심리를 일으키는 개인 내부의 인과적 구성체로 보는 것이며(Yuill & Pearson, 1998), 타인이 보여주는 행동의 규칙성이 개인의 내적 속성 때문에 초래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은 특질이 속성들을 초래하는 인과적 기제라는 특질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심리적 속성 추론 시 특질 단서를 추론의 근거로 사용한다.

나이 어린 유아가 특질을 이해하고 추론의 근거로 사용하는 시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있다(Ruble & Dweck, 1995; Yuill, 1992a). 유아는 사람이 특질 일관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거나(Rholes & Ruble, 1984), 5, 6세의 아동은 9, 10세의 아동에 비해 사람을 묘사할 때 특질을 드물게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들(Livesley & Bromley, 1973; Peevers & Secord, 1973)이 있

다. 이와는 달리, 4세에서 6세 아동은 특질과 일치하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연구결과(Cain, Heyman, & Walker, 1997; Dozier, 1991; Droegge & Stipek, 1993; Heller & Berndt, 1981)도 있다. Heyman과 Gelman(2000a)은 이와 같이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은 언어적 유능성을 요하는 과제를 사용하고 특질을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유아의 언어적 표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질을 지칭어로 직접 제시하는 과제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는데, 그 결과 3, 4세 유아도 눈에 보이는 외양 유사성을 뛰어넘어 특질을 대인 추론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질을 지칭어로 직접 제시하는 과제를 사용했을 때, 매우 어린 연령의 유아도 특질을 대인 추론의 단서로 사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Heyman과 Gelman(2000a)의 연구에서는 3세와 4세 유아를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유아가 정확히 언제부터 특질단서를 대인 추론의 근거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Dozier, 1991; Rholes & Ruble, 1984)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 및 성인과 비교해서 차이를 살펴본 것일 뿐, 유아기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연구 대상 연령을 3세, 4세, 5세로 구분하여 어느 시기부터 특질단서를 대인 추론에 사용하는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은 3, 4세 유아가 타인의 심리적 속성을 추론할 때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사용해서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연구 방법 상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은 외양이 유사한 인물을

흑백의 선 그림으로 제시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유아들에게도 유사하다고 인식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Sloutsky, Lo와 Fisher(2001)에 따르면, 사물의 외양 유사성은 4, 5세 유아의 사물의 낯선 속성을 추론하는 데 영향을 준다. 7, 8세 아동과 달리 4, 5세 유아는 외양 유사성 수준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외양을 근거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의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특질단서를 대인 추론 단서로서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시된 자극의 낮은 외양 유사성으로 인해 유아들이 특질단서를 선택했다는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의 대인 추론에서 외양 유사성과 특질단서가 추론의 잠재적 근거로서 실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도록, 인물 자극의 외양 유사성 수준을 높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에게 외양 유사성 수준을 상, 하, 두 개의 수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 자극의 유사성 수준이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는 외양 뿐 아니라 지칭어를 추론의 단서로 사용한다(Gelman & Markman, 1986; Heyman & Gelman, 2000b). 유아가 지칭어에 기초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지칭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거나, 혹은 언어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Davidson & Gelman, 1990). 유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추론하기 위해 친숙한 범주지칭어(category label)를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Gelman & Markman, 1986). 최근에는 유아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지칭어를 추론 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자연범주의 영역에서 유아는 지칭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도 지칭어에 기초해 추론할 수 있다

(Davidson & Gelman, 1990; Sloutsky, Lo, & Fisher, 2001). 사회적 영역에서 유아는 친숙한 특질지칭어를 심리적 속성 추론에 사용하고(Heyman & Gelman, 2000a) 의미를 모르는 낯선 서술어도 때때로 외양보다 더 중요한 추론단서로 여긴다(Heyman & Gelman, 2000b). 이는 유아가 사람에 대한 서술어에 일반적 기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친숙한 특질지칭어 사용과 낯선 서술어 사용을 따로 살펴봄으로써 특질단서에 대한 유아의 경험의 정도, 즉 친숙성 수준이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을 더 촉진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만약 특질지칭어의 친숙성 수준에 따라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이는 유아가 특정한 특질지칭어를 추론 단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특정 특질지칭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어린 유아들이 언어, 특히 사람의 특징을 서술하는 지칭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을 달리 하여 특질단서의 친숙성이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3세, 4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갈등적인 대인 추론에서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이 연령과 과제 변수, 즉 외양 유사성 수준과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갈등적인 대인 추론에서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사용해서 추론하는 경향은 몇 세부터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

3세, 4세, 5세의 연령집단 각 32명씩 총 96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각 연령집단과 과제의 조건 내에서 남아와 여아의 수는 동수로 구성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3학년 아동 30명과 3세 유아 8명이 연구도구 제작을 위한 조사에 참가했다. 연구 대상의 평균 월령은 3세 유아의 경우 평균 3년 6개월(36개월-47개월), 4세 유아는 평균 4년 5개월(48개월-59개월), 5세 유아는 평균 5년 6개월(60개월-71개월)이었다.

실험도구

인물 자극 세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물자극세트는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물자극세트를 두 가지 점에서 수정한 것이다. 첫째, 인물의 외양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흑백의 선그림(line drawings) 대신 실제 인물의 컬러 사진을 사용하였다. 이는 선행연구(Heyman & Gelman, 2000a, 2000b)의 인물자극세트가 외양 유사성이 다소 낮아서 표적인물과 외양이 유사한 인물간의 유사성이 실제로 유아에게 인식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이전 연구에서는 외양 유사성 수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인물자극세트를 외양 유사성 수준(상,하)에 따라 각각 8개씩 제작해 총 16개의 인물자극세트를 사용했다.

인물자극세트의 제작은 사진촬영, 사진합성,

설문조사, 외양 유사성 상/하 사진 결정, 보완 및 재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반 유아들의 독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부모로부터 유아의 사진을 연구에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사진들만 연구에 사용하였다. 남아 사진 4장과 여아 사진 4장을 선택해 6단계의 사진 합성 단계에 따라 Adobe Photoshop 7.0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하였다. 각 단계별 합성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사진합성을 통해 외양이 유사한 자극을 만드는 방법은 Sloutsky, Lo와 Fisher(2001)가 동물(예, 개와 고양이) 사진에 사용한 방법을 참고한 것이다. 합성단계의 뒤로 갈수록 본래의 사진과의 외양 유사성 수준은 점점 감소한다.

다음으로, 합성된 사진의 외양 유사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위적으로 그려진 도식적 그림과 달리, 실물을 촬영한 자연 자극은 특징을 개별화하기가 어렵고 오버랩된 특징들을 나타내는 유사성을 정확히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Sloutsky, Lo, & Fisher, 2001). 따라서 선행연구들(Gelman & Markman, 1986; Sloutsky, Lo, & Fisher, 2001)은 외양 유사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자로 두 자극이 서로 얼마나 닮아 보이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는 방법(Gelman & Markman, 1986)과 ‘같다/다르다’로 판단하게 하여 ‘같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Sloutsky, Lo, & Fisher, 2001).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시각에서 두 자극이 비슷하게 보이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해 유사성을 평정하게 하였다. 즉, 본래의 사진과 합성사진을 보여주고 ‘닮았다/닮지 않았다’

표 1. 사진 합성 단계

기준 사진		기준이 되는 사진(사진 A)을 정한다. 옷, 머리, 눈,코,입을 오려낼 같은 성(남아, 여아)의 사진(사진 A')을 고른다. 이 두 사진이 한 쌍이 된다.	
1 단계		사진A'에서 목 아래부분(목, 어깨부분, 옷)만 오려서 사진A의 얼굴에 합성한다. 즉, 얼굴은 A의 얼굴인데 옷만 다르게 입은 사진을 만든다.	
2 단계		1단계에서 완성된 사진에 사진A'의 머리모양을 오려 합성하거나 또는 머리모양을 변형한다.(예를 들면 긴머리를 짧은 머리로)	
3 단계		2단계에서 완성된 사진에서 얼굴형을 사진A'의 얼굴형을 오려붙이거나 또는 변형시킨다. 이 때 눈, 코, 입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	
4 단계		3단계에서 완성된 사진에서 사진A'의 입모양을 오려 붙이거나 변형시킨다.	
5 단계		4단계에서 완성된 사진에서 사진A'의 코모양을 오려 붙이거나 변형시킨다.	
6 단계		5단계에서 완성된 사진에서 사진A'의 눈모양을 오려 붙이거나 변형시킨다.	



외양 유사성 '상' 과제용 인물자극세트



외양 유사성 '하' 과제용 인물자극세트

그림 1. 인물 자극

로 판단해서 표시하게 하였다. 문항 수는 총 48 문항이었다.

설문지를 회수한 뒤, 90% 이상의 아동이 ‘닭았다’고 응답한 사진을 외양 유사성 ‘상’으로, 10-25%의 아동이 ‘닭았다’고 응답한 사진을 외양 유사성 ‘하’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10-25%의 아동이 ‘닭았다’고 응답한 사진이 없는 경우가 1건 발생하여 30-40%의 아동이 ‘닭았다’고 응답한 사진을 선택해 눈, 코, 입, 머리모양, 얼굴형 등을 수정하여 외양 유사성을 더 감소시켰다.

사진 선택이 끝난 뒤, 선택된 사진을 이용해 인물자극세트를 제작했다. 1개의 인물자극세트는 가로 21cm 세로 16cm의 흰 종이에 표적인물(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 표적인물과 외양이 유사한 인물(합성사진), 표적인물과 외양이 전혀 다른 인물(합성에서 제외된 사진)을 인쇄하여 코팅하였다. 각 인물자극세트 별로 표적인물을 아랫줄 가운데에 두고 윗줄에는 두 개의 선택인물(표적인물과 외양이 유사한 인물, 특질지칭어가 같은 인물)을 양옆으로 오게 배열하였다. 외양자극과 특질자극의 좌우 배치는 위치 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서에 따라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특질단서

특질단서는 특질지칭어를 통해 언어적으로 직접 제시하였다. 친숙한 특질지칭어와 낯선 특질지칭어를 합해 총 8쌍의 특질지칭어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친숙한 특질단서는 Heyman과 Gelman(2000a)이 사용한 특질지칭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했다. 예를 들어, smart-not smart 쌍의 경우는 다른 특질지칭어 쌍과 달리 부정어(not)를

사용해 대립되는 의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어 유아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똑똑하다-똑똑하지 않다’ 대신 ‘똑똑하다-바보스럽다’를 사용하였다.

1차로 친숙한 특질지칭어들을 구성한 뒤, 3세 유아 4명을 대상으로 이들 특질지칭어가 유아에게 친숙한지 확인하였다. 유아가 특질지칭어의 의미를 이해하는지와 관련된 사전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유아가 특질지칭어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특질지칭어를 제시해 보다 쉽게 인식되는 특질지칭어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착하다’와 반대되는 특질지칭어를 ‘심술궂다’, ‘못되다’에서 ‘나쁘다’로, ‘silly-serious’ 쌍을 ‘잘 웃긴다-얕전하다’로, ‘shy-outgoing’ 쌍을 ‘수줍음을 탄다-활달하다’에서 ‘부끄러움을 잘 탄다-씩씩하다’로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친숙한 특질단서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낯선 특질단서는 친숙한 특질단서 조건의 특질지칭어와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띠도록 연구자가 만들어 사용하였다. 친숙한 특질지칭어로 사용된 단어들이 어미 ‘-스럽다’(예, 바보스럽다)와 ‘-하다’(예, 얕전하다)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해, 낯선 특질지칭어도 동일한 어미 형태를 갖도록 했다.

낯선 특질지칭어 구성에는 다음의 세 가지 방

표 2. 친숙한 특질단서 조건의 특질지칭어 목록

친숙한	착하다 - 나쁘다
특질	부끄러움을 잘 탄다 - 썩씩하다
단서	잘 웃긴다 - 얕전하다
	똑똑하다 - 바보스럽다

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기존에 있는 단어이나 유아는 물론 성인들도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단어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 ‘뒤웅스럽다’는 ‘뒤웅박처럼 생겨, 보기에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기존 단어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 낯선 특질지칭어는 ‘새실스럽다’, ‘배속하다’, ‘요밀하다’이다. 둘째, 기존 단어의 초성, 중성, 종성을 변형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모롱하다’라는 낯선 특질지칭어는 ‘모록하다’라는 기존 단어에서 한 음절의 종성을 변형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낯선 특질지칭어로 ‘수림하다’와 ‘나슬하다’가 있다. 셋째, 기존의 두 단어를 섞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예로, ‘간밋하다’는 ‘간단하다’와 ‘밋밋하다’를 혼합해 만든 것이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낯선 특질단서는 표 3과 같다.

대인 추론 속성

유아가 특질을 개인의 행동, 의도나 정서, 바램 등 사람에 관한 광범위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구성체로 본다면, 유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속성을 추론함에 있어서 특질단서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 추론속성으로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이 사용한 심리적 속성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 3. 낯선 특질단서 조건의 특질지칭어 목록

낯선	뒤웅스럽다 - 새실스럽다
특질	간밋하다 - 나슬하다
단서	모롱하다 - 배속하다 요밀하다 - 수림하다

좋아하는 놀이, 여가, 친구, tv 쇼, 선생님,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의 소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은 특질을 비롯해 성별, 연령과 같은 사회적 범주 정보로부터 아동들이 추론한다고 보고된 속성들이다(Heyman & Gelman, 2000a, 2000b). 그런데, 연구자가 우리나라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TV쇼’ 보다는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가 유아들에게 더 쉽게 이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적인 과제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심리적 속성을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대인 추론 속성은 표 4와 같다.

대인 추론 속성에는 유아가 사전에 습득한 연결이나 경험에 기초해 추론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낯선 단어를 포함시켰다.

실험 절차

예비조사

연구도구의 제작 및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4. 대인 추론 속성 목록

	모모놀이(티벳놀이)를 좋아한다
	가가(두두) 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한다
	나리(지제)와 노는 것을 좋아한다
대인 추론 속성	학교 끝나고 모리(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와글와글(구리구리) 비디오를 가장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꺄(똥) 선생님이다
	무학(비술) 숙제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이다음에 커서 망개(비투)를 하고 싶어한다

총 3회의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사진의 외양 유사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로 특질지칭어 선정을 위해 3세 유아 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면담을 실시했다. 3차 예비조사는 마련된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울 소재 어린이집 1곳에서 3세 유아 8명, 4세 유아 8명, 5세 유아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들이 인물자극세트에 흥미를 보이며 “애랑 애랑 닮은 것 같은데……”, “형제인 것 같아요”하고 표적인물과 외양자극 간의 외양 유사성을 즉각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시문을 들려주었을 때 3세 유아도 “애랑 애랑 똑같이 똑똑해요?”하고 두 인물의 특질지칭어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조사자의 어조나 지시문을 읽는 속도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지시문 및 질문을 녹음하여 유아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유아들은 한 번 지시문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조사자에게 말을 거는 등 주의가 빨리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조사에서는 조사자가 직접 유아에게 지시문을 읽어주고 질문을 하되 어조와 읽는 속도, 문장과 문장 사이의 접속사(그리고, 그런데) 등을 동일하게 하였다.

본조사

연구자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중류층 밀집 지역 어린이집 4곳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내의 조용한 곳에서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석사과정 1인이 일대일 면접을 통해 대인 추론 시 연령과 과제 변수에 따른 유아의 특질 단서 사용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아가 면접실에 오면 조사자는 유아와 나란히 앉아서 유아에게

이름과 소속 반을 물으며 라포를 형성한 뒤, 정해진 지시문에 따라 과제를 간단히 소개한다(“선생님이 OO에게 세 사람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럼 OO는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 말을 듣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 주면 돼요 알겠지요? 사진은 모두 합해서 열여섯 장인데 여덟 개를 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할 거예요 자,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유아가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인물자극세트 1개를 보여주며 대인 추론 과제를 실시한다. 면접자는 한 인물씩 손으로 가리키면서 유아에게 세 명의 인물의 특질정보를 특질지칭어로 제시한다(예, “이 아이는 착해요”, “이 아이는 나빠요”, “이 아이는 착해요”). 다음으로 표적인물을 제외한 두 인물의 특질정보와 심리적 속성에 대한 정보를 준다(예, “이 아이는 착하고(특질정보) 모모놀이를 좋아해요(심리적 속성 정보)”, “이 아이는 나쁘고(특질정보) 티벳놀이를 좋아해요(심리적 속성 정보)”). 마지막으로 질문단계에서는 표적인물이 어느 선택인물과 심리적 속성을 공유할지 강요선택 질문을 한다(예, “이 아이는 착한 이 아이처럼 모모놀이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나쁜 이 아이처럼 티벳놀이를 좋아할까요?”). 유아는 질문에 언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손으로 가리켜 응답하였으며, 조사자는 유아의 응답을 별도의 응답 기록지에 표시하였다. 기록이 끝난 뒤에는 다음 인물자극세트를 제시하며 다음 과제로 넘어갔다. 16개의 과제가 모두 끝나면 조사자는 연구에 참여한 유아에게 잘 했다는 칭찬과 함께 선물을 주었다. 1인당 과제 소요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이었다.

점수화

1개의 대인추론과제에 대한 유아의 응답은 0 점 또는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즉, 유아가 외양 유사성에 근거해 추론한 경우 0점을 부여하고, 특질단서에 근거해 추론한 경우 1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유아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추론에서 특질단서를 더 많이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1명의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외양 유사성 '상' 과제에서 0점부터 8점, 외양 유사성 '하' 과제에서 0점부터 8점으로, 총점의 범위는 0점부터 16점까지였다.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이 연령과 과제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특질단서의 친숙성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외양 유사성 수준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했다. 또한, 유아가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더 사용하는 경향은 몇 세부터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로 단일표본 t검증(one sample t-test)을 실시했다.

결 과

연령과 과제변수에 따른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연령과 과제변수에 따른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연령과 과제변수에 따라 유아의 특질단서 사

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령(3,4,5세)과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친숙, 낯선)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외양 유사성 수준(상, 하)을 피험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과 외양 유사성 수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점수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54, df=2, 90, p<.01$).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ukey's HSD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세와 4세 간, 그

표 5. 연령과 과제변수에 따른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점수

특질 단서 친숙성 조건	연령	외양 유사성 수준		전체 M (SD)
		외양 유사성 상 M (SD)	외양 유사성 하 M (SD)	
친숙	3세	3.56 (1.09)	4.13 (1.54)	7.69 (1.99)
	4세	5.19 (1.87)	5.44 (1.63)	10.63 (3.24)
	5세	5.19 (1.80)	5.88 (1.54)	11.06 (3.15)
	평균	4.65 (1.77)	5.15 (1.71)	9.79 (3.18)
낯선	3세	3.81 (1.64)	4.19 (1.28)	8.00 (2.34)
	4세	4.06 (1.44)	4.38 (1.20)	8.44 (1.97)
	5세	4.38 (2.09)	5.50 (1.55)	9.88 (3.36)
	평균	4.08 (1.72)	4.69 (1.45)	8.77 (2.69)
전체	3세	3.69 (1.38)	4.16 (1.39)	7.84 (2.14)
	4세	4.63 (1.74)	4.91 (1.51)	9.53 (2.86)
	5세	4.78 (1.96)	5.69 (1.53)	10.47 (3.26)
	평균	4.36 (1.76)	4.92 (1.59)	9.28 (2.97)

표 6. 연령과 과제 변수(외양 유사성 수준,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에 따른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변량분석

종속변인	변동원	지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특질단서	연령	56.63	2	28.31	7.54 **
	친숙성	12.51	1	12.51	3.33
	연령×친숙성	12.67	2	6.33	1.69
	오차	337.91	90	3.76	
사용	유사성	14.63	1	14.63	11.79 **
	유사성×연령	3.29	2	1.65	1.33
	유사성×친숙성	.13	1	.13	.11
	유사성×연령×친숙성	.79	2	.40	.32
	오차	111.66	90	1.24	

** $p < .01$

리고 3세와 5세간에 특질단서 사용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4세와 5세간에는 특질단서 사용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3세와 4세 사이에 대인 추론에서 특질단서를 사용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한, 특질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알아맞히기 질문에서 3세 유아의 수행 점수가 4세와 5세 유아의 수행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Yuill & Pearson, 1998)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외양 유사성 수준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점수는 외양 유사성 ‘상’ 과제보다 외양 유사성 ‘하’ 과제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11.79$, $df=1, 90$, $p < .01$). 즉 과제의 외양 유사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 외양 유사성 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특질단서에 근거한 추론이 더 많았다. 이는 곧 외양 유사성이 높은 경우에는 외양 유사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외양에 근거한 추론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들 간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둘 간에 속성의 귀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유사성 기반 귀납(Similarity-based induction)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동물의 속성에 대한 귀납 추

론에서 외양의 유사성 수준이 높을수록 외양과 갈등적으로 제시된 지칭어에 근거한 추론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Sloutsky et al, 2001; Sloutsky & Fisher, 2004)와 일치한다. 즉,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서로 갈등적인 대인 추론 과제에서 유아가 특질단서를 사용할지 외양단서를 사용할지는 과제에 제시된 자극의 외양 유사성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숙한 특질단서 조건의 유아들과 낯선 특질단서 조건의 유아들 간에는 특질단서 사용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특정 특질지칭어를 대인 추론의 단서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그 특질지칭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점수에서 연령과 외양 유사성 수준간, 연령과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간, 외양 유사성 수준과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미치는 연령과 외양 유사성 수준의 효과가 각각 독

립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과 우연수준의 차이

앞서 실시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의 결과로는 4세, 5세 유아가 3세 유아보다 특질단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으나, 유아가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사용해 추론하는 경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유아가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사용해 추론하는 경향이 몇 세부터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로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특질단서 사용 점수를 우연수준과 비교하였다.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이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외양과 특질단서 중 어느 것도 유의하게 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우연수준보다 유의하게 높다면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사용해 추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eyman & Gelman, 2000a, 2000b).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세와 5세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점수가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세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은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세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점수는 외양유사성 ‘상’과 외양 유사성 ‘하’ 모두에서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3

세 유아의 경우, 과제를 임의로 수행했을 때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외양과 특질단서 중 어느 것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4세 유아는 외양 유사성 하에서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9, df=31, p<.01$). 또한 외양 유사성 상과 외양 유사성 하를 합친 전체 점수에서도 우연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03, df=31, p<.01$). 외양 유사성 상에서는 유의확률이 .05로 나타나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사용하는 경향에 근접했다. 즉, 4세 유아의 경우는 외양보다 특질단서를 사용해 추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5세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점수는 외양 유사성 상($t=2.25, df=31, p<.05$)과 외양 유사성 하($t=6.23, df=31, p<.001$) 모두에서 우연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5세 유아는 외양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외양을 넘어 특질단서에 더 비중을 두고 대인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대인 추론에서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유아기의 발달적 변화와 과제 변수에 따른 효과는 구체적으로 살펴보

표 7.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 점수와 우연수준 비교

조건	연령	외양 유사성 상 <i>M(SD)</i>	외양 유사성 하 <i>M(SD)</i>	전체 <i>M(SD)</i>
전체	3세	3.69(1.38)	4.16(1.39)	7.84(2.14)
	4세	4.63(1.74) ⁺	4.91(1.51) ^{**}	9.53(2.86) ^{**}
	5세	4.78(1.96) [*]	5.69(1.53) ^{***}	10.47(3.26) ^{**}

⁺ $p<.10$, ^{*} $p<.05$, ^{**} $p<.01$

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령과 과제의 외양 유사성 수준,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에 따라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인 추론에서 외양의 유사성보다 특질단서를 더 사용하는 경향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유아는 4세경부터 타인의 심리적 속성을 추론하는 대인 추론에서 외양보다 특질단서에 더 비중을 두고 추론한다. 4세와 5세 유아는 3세 유아보다 대인 추론에서 특질단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 추론에서 특질단서 사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특질에 대한 이해가 7세부터 10세 사이에 급격히 발달하며 유아는 특질 개념을 가지지 못한다는 전통적 견해와는 다르다.

이 연구 결과는 4세경에 유아는 특질을 심리적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행동과 심리 상태를 일으키는 내적 원인으로서의 특질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4세에서 5세의 유아 집단부터 특질에 근거한 정서 추론과 행동 추론이 우연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Yuill & Pearson, 1998)와 일치하며, 4세 유아가 ‘착하다(nice)’, ‘나쁘다(mean)’와 같은 특질지칭어 정보를 사용해서 인물의 정서 반응, 행동 동기 등의 심리적 속성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Heyman & Gelman, 1999)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5세 유아는 특질정보가 내면 상태에 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믿으며(Heyman & Gelman, 1999), 4세부터 5세의 유아는 특질이 반대되면 동일한 상황에 대한 행동 및 정서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한

다(Gnepp & Chilamkurti, 1988; Yuill & Pearson, 1998).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 결과는 특질이 심리적 속성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단서가 된다는 믿음을 4세경부터 가질 가능성을 지지하여 준다. 또한, 유아가 특질단서를 대인 추론에 사용하는 능력이 전통적인 인지 발달 이론 입장에서 주장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연령에서 발견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갈등적인 대인 추론에서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은 과제의 외양 유사성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유아는 외양 유사성이 높은 과제보다 외양 유사성이 낮은 과제에서 특질단서를 더 많이 사용한다. 과제의 높은 외양 유사성은 유아가 이를 넘어서서 특질단서를 추론 단서로 사용하는 경향을 감소시킨다. 이는 외양 유사성과 지칭어 단서를 대비시킨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할 때 제시된 과제의 외양 유사성 수준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3, 4세 유아가 외양 유사성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질단서에 기초해 추론하였다는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의 연구결과 역시 사용된 연구도구의 외양 유사성 수준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외양 유사성 상 과제와 외양 유사성 하 과제는 다른 모든 사항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표적인물과 외양자극 간의 외양 유사성 수준만 달랐다. 그러므로 외양 유사성 상은 외양 유사성 하보다 전체적인 유사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외양 유사성 수준에 따라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적인 유사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속성을 귀납 추론할 가능성이 높다(Sloutsky, 2003; Sloutsky & Fisher, 2004; Sloutsky, Lo, &

Fisher, 2001)는 유사성 기반 귀납을 지지한다. 외양 유사성 상에서는 외양 유사성 하 보다 외양 자극과 표적 자극간의 시각적 유사성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외양 유사성 수준의 특출성이 전반적 유사성 수준을 월등히 높여 외양 유사성에 따른 추론이 증가하고 특질단서를 사용한 추론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은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대인 추론에서 유아는 자신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아는 특질지칭어와 전혀 경험한 적이 없고 의미를 모르는 특질지칭어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는 유아가 낯선 지칭어에도 중요한 귀납적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Heyman & Gelman, 2000b, Sloutsky et al., 2001)과, 자연범주 영역에서 4, 5세 유아가 친숙한 범주지칭어와 낯선 범주지칭어를 추론 단서로 사용하는 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Davidson & Gelman, 1990, 실험 3)와 일치한다.

유아가 낯선 특질단서와 친숙한 특질단서에 기초한 추론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유아는 사람에 대한 서술어, 혹은 지칭어에 대해 일반적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Heyman & Gelman, 2000b). 즉 유아는 사람에 대한 서술어가 풍부한 개념적 정보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추론에서 사람에 대한 서술어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일반적 기대는 구체적 경험과는 독립적이므로(Davidson & Gelman, 1990) 사람에 대한 서술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낯선 특질지칭어와 친숙한 특질지칭어 사용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는 사전 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언어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가지고 낯선 지칭어에

기초해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인 추론에서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은 개별적인 특질지칭어에 대한 유아의 경험에 기초하기보다는 사람의 특징에 관한 서술에 대해 유아가 갖는 기대에 기초한 것일 수 있다.

이 연구는 특질제시 단계에서 면접자가 인물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 아이는 부끄러움을 잘 타요’, ‘이 아이는 새실스러워요’와 같이 유아에게 친숙하거나 낯선 특질지칭어를 말해주었다. 이 때, 낯선 특질지칭어들은 친숙한 특질지칭어들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고, 「주어(이 아이는) + 서술어(-다)」의 문장구조로 제시되었다. 유아는 3세경에 단어의 품사와 의미 간에 특별한 기대를 많이 드러내며 단어의 문법적 형태와 새로운 단어가 주어지는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Waxman, 2004). 가령, 새로운 명사는 대상의 범주에 더 주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형용사는 대상의 특성에 특별히 더 주의하도록 한다. 따라서 낯선 특질단서 조건의 유아들도 친숙한 특질단서 조건의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제시된 지칭어를 사람의 특질을 서술하는 단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을 고려해 볼 때, 유아는 처음 듣는 낯선 특질지칭어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사람의 특질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를 들어 유아는 면접자가 말해준 낯선 특질지칭어를 따라서 발음하며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예, “새실스러워요?”, “뒤웅스러워요?”). 또한 대인 추론 속성에 포함된 낯선 단어들에 대해서도 “이 다음에 커서 비투를 하고 싶어해요.”라는 면접자의 말에 “난 아직 비투 못해봤는데...”하며 자신은 모르지만 실제 존재하는 말처럼 취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는 낯선 특질단서를 자신이

알고 있는 특질단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특질에 대한 서술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대인 추론의 정보원천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는 추론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사람에 대한 서술에 귀납적 중요성을 부여한다(Heyman & Gelman, 2000b).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은 유아가 자연적 세계에서 범주지칭어가 갖는 풍부한 개념적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낯선 범주지칭어도 추론의 단서로 사용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사회적 세계에서 이와 비슷하게 유아들은 사람에 대한 특질을 기술하는 특질지칭어가 풍부한 귀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질지칭어에 대한 막연하고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 추론에서 낯선 특질지칭어도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또다른 해석 가능성은, 유아가 언어와 세계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다. 유아는 단지 주어진 자극 간의 전체적인 유사성에 기초해서 귀납 추론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 기반 귀납에 따르면, 특질단서로 제시된 특질지칭어는 유아에게 단지 청각적으로 유사한 언어적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질지칭어가 친숙하고 낯설음과는 관계없이 언어적으로 주어진 정보가 동일하므로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의 연구결과와 달리 3세 유아에게서 외양보다 특질단서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첫째, 본 연구에서 외양 유사성이 더 현저하게 제시되었기 때문

으로 추측된다. 즉, 과제에 따라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의 인물 그림은 표적인물과 외양자극 간의 외양 유사성이 유아에게 인식되었는지가 분명치 않고 실제로 외양자극이 특질자극에 비해 훨씬 더 유사해 보인다고 하기 어려운 자극 세트가 있다. 반면, 이 연구는 실제 인물의 사진을 합성해 외양자극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유아가 외양 유사성을 인식하기가 매우 쉬웠고, 그 결과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실제적으로 같음을 일으키게 하였다.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이 과제의 외양 유사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및 Sloutsky와 동료들(2001)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둘째, 연구대상의 월령 차이로 인해 결과의 차이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Heyman과 Gelman(2000a, 2000b)은 3세 중반인 3년 5개월부터 4세 후반인 4년 10개월까지의 유아를 한 집단으로 조사한 반면, 이 연구는 3년 0개월부터 3년 11개월까지의 유아를 3세 유아에, 4년 0개월부터 4년 11개월까지의 유아를 4세 유아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외양보다 특질단서에 근거해 추론하는 경향이 3세 중반 이후에 나타난다면 3세 전반의 유아들도 포함한 본 연구에서 특질단서 사용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같등적인 대인 추론에서 연령에 따라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이 다르며, 과제의 외양 유사성 수준에 따라 특질단서를 사용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었다. 또한,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에 따라 특질단서 사용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같등적인 대인 추론에서 4세와 5세 유아는 외양보다 특질단서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하며 3세는 그

렇지 않았다. 이는 4세 연령을 기점으로 발달적 차이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자극으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낼 때 두 자극 간의 지각적 특징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질과 같은 추상적 단서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유아들은 하나의 차원에 의해서만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복합적인 공통성, 즉 전체적인 유사성에 근거해 추론을 한다는 유사성 기반 접근을 지지한다. 이는 전조작기 유아는 자극의 한 가지 차원에만 초점을 맞춰 사고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는 중심화 경향과 다르며, 유아는 눈에 보이는 지각적 정보에만 근거해서 판단, 혹은 추론한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유아는 자연세계의 대상들의 속성을 추론하는 데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주에 중요성을 부여하듯이, 사회적 세계에서 사람들의 속성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속성이나 특질의 중요성을 점차 깨달아가는 중일 수 있다. 그러나 유아는 동시에 지각적 특징도 또한 추론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 실제로, 자연세계에서 동일한 범주의 구성원들끼리는 외양의 공통점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유아들은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갈등적인 대인 추론 상황에서 외양 유사성이 매우 현저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외양 유사성에 근거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3세 유아도 특질단서보다 외양을 추론 근거로 더 신뢰하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외양 유사성 수준이 높을수록 외양에 기초한 추론이 증가하고 특질단서에 기초한 추론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유아가 4세에 이르면 이미 외양보다는 특질단서가 개인의 심리적 속성을 추론하는 데 더 중요한 단서라는 점을 알고 이를 추론의 근거로 사용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질문이 3세 연령의 유아에게는 다소 복잡하였을 수 있다. 또한 유아가 만난 적이 없는 아동의 사진을 자극으로 제시하였으나 유아의 개인적 경험에 의한 인상이나 느낌 등이 유아의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통제하지 못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외양 유사성 수준 상과 하에 사용할 사진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들에게 단계적으로 변형한 자극을 제시하고 유사성을 평정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다른 사진들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외양 유사성 하에 사용된 사진도 절대적 기준에서는 유사성이 높은 편에 속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동안의 특질개념 발달 연구는 유아기를 세분화해서 살펴보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에서는 3세, 4세, 5세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한 특질단서 사용의 초기 발달 경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속적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을 실제 인물 사진으로 대체하여 외양 유사성이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하고 그 결과 특질단서와 외양 유사성이 실제적으로 유아에게 갈등을 일으키도록 연구 도구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셋째, 외양 유사성 수준을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유아의 특질단서 사용에 대한 과제의 외양 유사성 수준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특질단서의 친숙성 수준에 따른 차이 여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직접 비교를 통하여 친숙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특질개념의 발달 초

기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 유아들도 특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기초해 추론을 한다는 점과 사람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는 지칭어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유아교육 현장이나 실제 유아의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에게 유아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특질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참 고 문 헌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 Cain, K. M., Heyman, G. D., & Walker, M. E. (1997). Preschoolers' ability to make dispositional predictions within and across domains. *Social Development, 6*, 53-75.
- Davidson, N. S., & Gelman, S. A. (1990). Inductions from novel categories: the role of language and conceptual structure. *Cognitive Development 5*, 151-176.
- Dozier, M. (1991). Functional measurement as assessment of young children's ability to predict future behavior. *Child Development, 62*, 1091-1099.
- Droege, K. L., & Stipek, D. J. (1993). Children's use of dispositions to predict classmates'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46-654.
- Gelman, S. A., & Markman, E. M. (1986). Categories and inducti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23*, 183-209.
- Gnepp, J., & Chilamkurti, C. (1988). Children's use of personality attributions to predict other people's emotional and behavioral reactions. *Child development, 59*, 743-754.
- Heller, K. A., & Berndt, T. J. (1981).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formation and organization of personality at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2*, 683-691.
- Heyman, G. D., & Gelman, S. A. (1999). The use of trait labels in making psychological inferences. *Child Development, 70*, 604-619.
- Heyman, G. D., & Gelman, S. A. (2000a). Preschool children's use of trait labels to make inductive in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7*, 1-19.
- Heyman, G. D., & Gelman, S. A. (2000b). Preschool children's use of novel predicates to make inductive inferences about people. *Cognitive Development, 15*, 263-380.
- Livesley, W. J., & Bromley, D. B. (1973). *Person percep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Basic.
- Peevers, B. H., & Secord, P. F. (1973). Developmental changes in attribution of descriptive concepts to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20-128.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Rholes, W. S., & Ruble, D. N.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others. *Child Development, 55*, 550-560.
- Ruble, D. N., & Dweck, C. S. (1995). Self-con-

ceptions, person conceptions and their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5. Social Development* (pp. 109-139). Thousand Oaks, CA: Sage.

Sloutsky, V. M. (2003). The role of similarity in the development of categoriza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7, 246-251.

Sloutsky, V. M., & Fisher, A. V. (2004). Induction and categorization in young children: a similarity-based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3, 166-188.

Sloutsky, V. M., Lo, Y.-F., & Fisher, A. V. (2001). How much does a shared name make things similar? Linguistic labels, similarity, and the development of inductive inference. *Child Development*, 72, 1695-1709.

Waxman, S. R. (2004). Early word-learning and conceptual development. In U. Goswami (Ed.),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cognitive development*, (3th), pp. 102-126. Oxford: Blackwell.

Yuill, N. (1992a). Children's conception of personality traits. *Human Development*, 35, 265-279.

Yuill, N. & Pearson, A. (1998). The development of bases for trait attributi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raits as causal +mechanisms based on desir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74-586.

1차 원고 접수: 2007. 4. 16

수정 원고 접수: 2007. 5. 11

최종게재결정: 2007. 5. 12

Preschoolers' use of trait labels to make inferences about people according to their age and task variables

You-jeong Park Soon-hyung Yi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reschoolers use trait label information to make inferences about people, even when it conflicts with highly salient perceptual information and investigates preschoolers' use of trait labe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ir age and task variables (the level of perceptual similarity and the familiarity of trait labels). 32 three-year-olds, 32 4-year-olds and 32 5-year-olds saw photographs of three different children and were asked to predict whether one of the children would share properties with a child who has the same trait label but is dissimilar in appearance, or with a child who has a different trait label but is similar in appearance. The result shows that preschoolers view trait label information as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people. Children as young as 4 years of age treat the trait labels as more informative than appearance information when making inferences about people's psychological properties. Furthermore,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perceptual similarity in task affects preschoolers' use of trait label vs appearance information.

Key Words: inductive inferences, trait label, perceptual similarity, familiarity of labels, similarity-based model